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457.4	16.1	119,500	-1.6	-4.8	-11.5	-7.0	83.3	39.9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553.7	21.9	341,000	0.9	-1.7	-4.2	-1.4	4.6	3.8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506.9	6.2	24,900	-2.5	-13.7	4.2	12.2	2.4	2.1	0.2	0.2	9.3	9.7
현대건설기계	994.9	10.1	50,500	-0.6	-4.7	-2.3	18.3	3.2	2.4	0.4	0.3	11.7	13.9
삼성중공업	5,544.0	19.7	8,800	0.1	1.1	18.8	18.8	55.5	27.5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141.1	11.3	29,300	1.4	-3.0	-9.4	-14.2	10.2	17.3	0.9	0.8	9.0	4.3
현대미포조선	2,348.6	13.1	58,800	0.0	3.2	-4.5	-2.0	12.7	9.2	0.4	0.4	3.6	4.8
한진중공업	N/A	3.6	N/A	N/A	N/A	N/A	N/A	N/A	N/A	N/A	N/A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509.4	20.1	92,400	-0.1	12.3	-15.6	-13.6	16.3	15.9	2.2	2.0	14.6	13.3
두산밥캣	3,127.8	25.3	31,200	-0.6	1.8	-5.3	-1.0	11.4	10.8	0.9	0.8	7.4	7.6
현대로템	2,027.3	3.9	23,850	0.6	8.7	-14.2	-14.4	30.8	21.0	1.4	1.3	4.5	6.3
하이룩코리아	272.3	47.5	20,000	1.3	14.6	15.6	21.6	9.1	8.3	0.8	0.7	8.8	9.0
성광벤드	333.2	16.5	11,650	-0.4	14.8	3.6	2.2	1,029.8	41.8	0.7	0.7	0.1	1.8
태광	314.0	11.9	11,850	-1.3	12.3	0.0	1.3	70.8	34.6	0.7	0.7	1.0	2.1
두산중공업	983.7	10.4	7,200	-1.4	6.0	-17.0	-14.2	-21.6	10.1	0.3	0.4	-0.1	3.9
두산인프라코어	1,569.5	17.2	7,540	0.0	-1.3	-7.6	-0.7	5.2	5.4	0.8	0.7	17.7	14.1
HSD엔진	153.9	3.6	4,670	-0.6	-0.6	-10.2	-11.6	-12.3	N/A	0.7	N/A	-4.7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567.6	16.1	36,600	0.4	-0.1	7.8	14.7	53.4	23.1	3.2	3.0	6.1	14.0
한화테크윈	1,654.9	15.2	31,800	-3.8	-2.2	-3.9	-2.2	131.7	25.2	0.7	0.7	0.6	2.8
LG넥스원	810.7	8.4	36,850	-1.7	-2.5	-10.9	-0.3	84.9	33.8	1.7	1.3	2.4	3.6
태웅	199.9	4.2	9,990	-0.1	-0.6	-1.1	-4.9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28.8	4.2	8,480	-1.9	-2.5	15.2	9.8	-17.9	19.9	3.1	2.7	-16.2	11.4
한국가본	353.9	14.1	8,050	-1.5	-3.0	18.4	14.3	125.4	22.5	1.2	1.1	0.9	5.2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NYK orders LNG carrier at Samho on back of Edison charter

현대삼호중공업은 일본 선사 NYK에서 17.4만CBM급 LNG선 1척을 수주함. 해당 선박은 이탈리아 전력회사 Edison SPA가 20년+a 동안 용선할 예정임. 해당 선박에는 Dual-fuel 엔진이 장착되며, 인도는 2022년으로 예정됨. 일본 NYK는 이번 용선계약 등 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운임을 확보할 계획임. (TradeWinds)

IMO: France proposes mandatory slow-steaming

프랑스는 IMO(국제해사기구)에 가능한 빨리 선박 감속운항 의무화를 도입하자고 제안함. 감속운항은 단기간 내에 오염물질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고, 시장 수급개선을 가져올 수 있음. 선박 수요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할 전망이다. Drewry는 IMO 규제 시행으로 연료비 절감을 위해 선사들의 1) 감속운항, 2) 선적확대를 전망함. (TradeWinds)

VLCC earnings barely cover opex due to Asia refinery maintenance

아시아 정유업체 정기보수와 미국 걸프만에서 원유수출 감소, 탱커 인도량 증가 등에 따라 VLCC spot 운임은 OPEX(운영비용)을 소폭 하회했다고 알려짐. 아시아 정유업체는 IMO 규제 대응준비에 따라 평소보다 정기보수를 타이트하게 하는 중임. 동시에 3월 기준 중동 지역에서 항해하는 VLCC는 152척이었으나, 4월은 163척 규모로 증가함. (TradeWinds)

대우조선, 2200억원 규모 LNG 운반선 수주... 이성근 사장 첫 계약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Maran Gas에서 17.4만CBM급 LNG선 1척을 수주함. 계약금액은 2,200억원 규모로 알려짐. 인도는 2022년 1분기로 예정됨. 발주처는 LNG선 추가 발주를 계획하고 있어, 대우조선해양과 논의 중인 상황임.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LNG선 4척, VLCC 6척 등 10척을 수주함. 금액으로는 13억달러로, 연간 수주목표 83.7억달러의 15%임. (서울경제)

Shanghai Waigaoqiao Shipbuilding seeks shipowners for pair of VLCC slots

중국 Shanghai Waigaoqiao 조선소(SWS)는 VLCC 신조선 2척을 8,400만달러에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마케팅함. 선박은 30만DWT급으로 20년 9월과 21년 3월에 인도 받을 수 있음. 선박왕 John Fredriksen이 협상 중으로 알려졌다. 8천만달러 이하가 아니면 발주하지 않겠다고 언급함. 다만 강제가 인상으로 선가를 8천만달러에 맞출 수 없을 전망이다. (TradeWinds)

'한선' 20%, 2020년까지 스크러버 장착

컨테이너선 리서치기관 Alphaliner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척 수 기준 글로벌 컨테이너선 대 10%, TEU 기준 20%가 스크러버를 장착할 전망이다. 현재 스크러버 장착을 주도하는 선사는 MSC와 Evergreen임. 스크러버가 선박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스크러버 경제성은 확실히 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